■ 불교로 본 장선우의 영화들

중생의 자유 · 구원 성찰하는 구도의 여정

장선우 감독 영화 연대기

1986 '서울 황제' (선우완 공동 연출)
1988 '성공시대'
1990 '우묵배미의 사랑'
1991 '경마장 가는 길'
1993 '화엄경'
1994 '너에게 나를 보낸다'
1996 '꽃잎'
1997 '나쁜 영화'
1999 '거짓말'
2002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장선우 감독은 1986년 데뷔 이후 현재까지 극영화만 10편을 만들었다. 사진은 시계 방향으로 서울 황제, 성공시대, 화엄경,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거짓말, 꽃잎.

불이 · 공 · 화엄사상 담아 불국토 갈망
'예술가=구도자' 보여주는 대표적 감독

장선우 감독 영화의 주제는 인간구원인데 그것은 종교적 색채를 띤다. 첫 영화 '서울 황제'는 원제가 '서울 예수'였다가 개신교계 반발을 의식한 나머지 엉뚱한 이름으로 개제돼 개봉됐고, 이 영화를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장에서 사장된 영화였다. 이 영화에서 예수는 누더기를 걸친 부랑자 모습의 인간으로 그려져 있다. 비록 이 영화는 예수를 소재로 했으나 그 사상은 불교의 불이사상(不二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성(聖) · 속(俗)의 구분을 없애고 그 경계를 모호하게 지워냄으로써 중생을 구원하는 붓다의 모습을 현실 속에서 찾은 것이다. 흙탕 위의 연꽃처럼 현대의 성자는 일상 속에서 초연하게 그려져 있다.

'성공시대'는 물질주의와 경쟁 사회 속에서 남을 억누르고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비틀린 욕망을 비판적으로 그려낸다. 주인공은 비정하게 남을 짓밟고 성공에 오르지만 이어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퇴출당하고 만다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의 비정함을 묘사한다. 모든 대상은 다 허망하다. '모든 물질적 대상이 허상임을 알면 곧 본질을 깨닫는다'는 <금강경>의 공사상(空思想)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초기 대표작이라 볼 수 있는 '우묵배미의 사랑'은 피착취인이 더 가난한 자를 착취한다는 주제를 멜로드라마로 정감 있게 그린 수작이다. 이 영화는 장선우 특유의 민중 지향적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영화는 민중 스스로의 반성과 자각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렸다. '평상심이 곧 도'라는 사상이 드러난 작품이다.

'경마장 가는 길'은 지식인의 위선과 모순을 고발한 작품이다. 영화는 인간의 삶이 허상이며 껍데기라고 설득한다. 프랑스 유학 갔다 온 대학교수가 자신의 제자이자 전 연인이었던 여자를 다시 만나는데, 그녀가 자신의 논문을 표절해 교수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줄거리다. 영화는 부도덕이 일상화된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현상은 항상 다른 것을 모방하고 표절하며 되풀이 될 뿐이다. 고유의 자아는 없다. 이는 모든 현상은 주체가 없다는(諸法無我) 부처의 가르침이 녹아 있다.

'화엄경'은 선재동자의 구도과정을 현대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영화의 주제는 자신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완성해간다는 것인데, 제목이 화엄경인 만큼 영화 곳곳에 대승사상이 전개돼 있다. 중생의 삶과 부처의 삶이 같은 것이라는 불이사상과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을 자각하게 하는 육조 혜능의 사상도 엿볼 수 있다.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지식인의 허위를 고발한 작품 계열에 속한다. 영화는 포르노 소설을 쓰는 소설가와 그 애인을 등장시킨다. 나중에 애인은 스타가 되고 소설가는 그녀의 시종이 된다는 결말을 통해 인생유전의 도리를 나타낸다. 영화는 '모든 행위는 영원한 것이 없다' '끝없이 소멸 · 생성된다'는 윤회의 진리를 제시한다.

'꽃잎'은 광주 항쟁 때 어머니를 잃고 유랑하는 미친 소녀의 이야기다.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광주 항쟁의 후유증은 단지 광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드라망이라는 말처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 '일중일체 다중일(一中一切, 多中一)'의 교훈을 담고 있다.

'나쁜 영화'는 도시의 빈민, 부랑아, 아웃사이더에 대한 애정을 다시금 표명한다. 가출 청소년들의 본드 환각과 매춘, 절도 등의 비행을 통해 이 사회가 인간의 본성과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는가를 그려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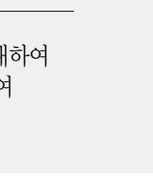
'거짓말'은 한 유부남이 아내 몰래 여고생을 만나 성적인 일탈을 하면서 새디즘(Sadism)과 매조키즘(Mazochism)의 쾌락 속에서 끝없이 부유한다는 이야기이다. 영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 엄청난 일탈의 광풍이 내재해 있다는 중산층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고발했다. 반면 방황하는 현대인 내면의 고독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하다. 물질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능과 야성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정신적 좌절과 방황을 그렸다. 십우도(十牛圖)에 나오는 반본환원(返本還源 · 본래의 맑고 깨끗한 근원으로 돌아감)의 진리를 성찰케 한다. 현대인의 모든 방황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는 곳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은 역시 물질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함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원한과 비참을 복수극 형태로 그려낸다. 현실은 냉혹하지만 이상적 세계는 환타지로 나타냈다. 영화에서는 게임, 나비 등의 소재를 사용해 그 경계를 모호하게 왕래한다. 불이사상이 표현된 부분이다.

장선우 감독의 영화는 교훈적이며 계몽적인 석가모니 혹은 조사들의 일대기를 그린 뻔한 종교영화가 아니라, 대단히 차원 높은 대승사상이 반영된 영화이다.

그의 영화에는 중생의 불국토를 구현하는 유마거사의 불이 · 공 · 화엄사상으로 점철돼 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도 그리 쉽게만 읽혀질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대중, 즉 고통 받는 중생의 자유와 구원을 향한 구도의 과정을 영화를 통해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예술가가 곧 구도자라는 점을 잘 보여준 대표적 사례임에는 분명하다.

정재형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
영화평론가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김화엄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원로의장 금봉 종회의장 경원 호계원장 용암
상임이사 혜광 원로부의장 명종 종회사무처장 삼주 교육원장 법해
이 사 화엄 원로의원 무찰 종회의원 이경담 포교원장 도안
도기 청송 조경담, 대각 감사원장 석성
일명 수암 대성, 덕봉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경담 송은 도정, 도허 총무부장 용운
자명 염원각 만성, 무상 교무부장 지언
감 사 혜천 원경 법경, 상원 재무부장 보월
혜원 승원, 일운 포교부장 정지현
자견, 자명 홍보국장 김지현
고시위원장 염원각 재성, 정일 자비나눔실천회장 광명심
지공, 지연
지우, 지허
해월, 현암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www.ilbung.org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 (02)998-8161~ 2 / 전송 (02)998-8384

□ 분한 신고 및 입종공고 □

귀의삼보하옵고
부처님 오신날, 더없이 좋은날을 맞이하여 창종주 일붕존자 큰스님의 높으신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면서 본 종단에서는 제4차 분한신고을 각지역 교구를 통하여 접수하오니 바른 종도로서 애종심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종도를 환영하고자 하오니 본 종단에 입종하시여 시대에 걸맞는 신바람나는 종단으로 같이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접 수 처 (각교구 종무원) -

· 서울 총무원 (직할 02-998-8161) · 부산 삼주(연화사, 051-294-2443)
· 대구 고봉(달마선원, 053-986-7134) · 대전 용주(금강사, 042-935-2796)
· 울산 지운(운지암, 052-260-4897) · 인천 용운(은혜사, 032-504-8359)
· 강원동부 보해(약수암,033-682-1933) · 강원서부 동청(동봉사, 033-436-8942)
· 경기남부 광은(우리절, 031-637-3766) · 경기북부 영우(혜인선원, 031-551-2107)
· 경남 승원(보현사, 055-832-6901) · 경북 해동(지장사, 054-672-6564)
· 전남 혜성(도선사, 062-261-0108) · 전북 석성(선각사, 063-244-2419)
· 제주 경운(경운사, 064-762-7816) · 충남 · 북 상원(해천사, 041-863-1259)

※ 본종 종헌 제17장 재정 및 회계, 제118조 2항 종단은 등록사찰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 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제119조 3항 각 개인사찰의 재정에 대하여 본 종단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